

돌싱남녀 “전 배우자 닮은 사람 싫다”

매니저님, 저는 ○○도 출신 여성은 가급적 피해주세요. 전 배우자가 그 지역 출신이었는데 너무 드센 성격이어서 결혼생활 내내 많이 힘들었거든요.” -서울 출신 58세 남성 A씨(대기업 중역 출신)

“재혼 상대는 다정다감하고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는 성품의 남성이었으면 해요. 전 남편은 너무 냉랭하고 과묵해서 부부간에도 늘 벽이 가로막혀 있었거든요.” -55세 B씨(교사)



‘재혼 조건 중 가장 충족시키기 힘든 사항’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남녀 의견에 큰 차이가 있었다. 남성은 ‘운순함’ (28.2%)과 ‘외모’ (25.9%), 여성은 ‘정서적 교감’ (33.2%)과 ‘능력’ (28.2%) 등을 각각 상위 1, 2위로 꼽았다. 이어 남성은 ‘정서적 교감’ (22.0%)과 ‘신뢰성’ (16.6%), 여성은 ‘신뢰성’ (17.4%)과 ‘외모’ (13.1%) 등 대답이 3, 4위를 차지했다.

재혼을 희망하는 돌싱(돌아온 싱글)들은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전 배우자와 비슷한 사람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전 배우자와의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.

8일 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한국의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-유는 이날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전국 (황혼)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(남녀 각 259명)을 대상으로 ‘재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.

이 질문에 남성은 응답자의 34.0%, 여성은 37.1%가 ‘전 배우자를 반면교사로 삼는다’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이어 남성은 ●초혼 실패 요인 제거(28.2%) ●초혼 때와 비슷함(20.8%) ●재혼의 궁극적 목적 실현(17.0%) 등 순으로 답했다. 여성은 ‘재혼의 궁극적 목적 실현’으로 답한 비중이 27.0%로서 2위에 올랐고, ‘초혼 실패 요인 제거’ (20.8%)와 ‘초혼 때와 비슷함’ (15.1%)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.

‘재혼이 초혼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이유’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‘부부간에 서로 조심’으로 답한 비중이 30.9%로 가장 앞섰고, 여성은 ‘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’이라는 응답자가 32.1%로 1위에 꼽혔다. 이어 남녀 모두 ‘경제적 기반 위에서 (재혼 생활) 시작’ (남 26.2%, 여 26.3%)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3위 이하로는 남성의 경우 ‘철이 들어서’ (20.8%)와 ‘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’ (15.1%), 여성은 ‘부부간 서로 조심’ (20.1%)과 ‘남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’ (15.3%) 등으로 답했다.

손동규 온리-유 대표는 “돌싱들은 결혼 실패 경험이 있으므로 재혼 생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와 같은 장애 요인도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.”며 “재혼 상대를 고를 때 너무 욕심을 내거나 이상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(초혼 실패 경험을 살려) 성격 조화 등 현실적인 면을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.”고 조언했다.

사진=shutterstock

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**MART** 옆

HOWARD DRUGS

·깨끗한 시설 ·저렴한 가격 ·친절한 서비스

당뇨/ 고혈압/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

세리토스, 실비치, 싸이프러스, 롱비치, 하와이언 가든, 다우니

30년 병원 임상경험
*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



약사 노혜경
Pharm.D.
Board Certified
Pharmacotherapy
Specialist



하워드 약국
562-866-6011

20141 Pioneer Blvd. Lakewood, CA 92715

JSK 건축, 플러밍



물
새
요
:

Lic #1049049 **재해복구 전문업체**

제이킴

714.249.5469

SLAB YARD for KITCHEN COUNTERTOP
Marble Yard. Inc.



마블야드
714.778.9901

Steve Han
(지금 전화 예약 주세요)



SLAB

- QUARTZITE
- MARBLE
- GRANITE
- QUARTZ
- PORCELAIN



900 E Vermont Ave. Anaheim, CA 92805
www.marbleyard.com